

#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s' Rearing Attitude, Covert Narcissism, and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김종운, 김지현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Jong-Un Kim(jongun21@hanmail.net), Ji-Hyun Kim(skileo@nate.com)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에 소재한 4개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580명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학교생활적응 검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524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1.0을 이용하여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내현적 자기애와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교규범준수에는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애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에는 성취적이고 합리적인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흥미에는 성취적인 부모양육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목표불안정이 학교생활적응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목표불안정이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성취적, 합리적 부모양육태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 다양한 부모교육과 목표 설정을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중심어 : |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 내현적 자기애 | 학교생활적응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parents' 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and students' covert narcissism on the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For that, research data are collected from 580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524 students' data are analyzed through SPSS Ver. 21.0 to examine correlations and influences of parents rearing attitude, students' covert narcissism and adjustment ability to schools.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inding shows that the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has a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with parents' rearing attitude which is perceived by students. Second, affective attitude of parents' rearing attitude, has the strongest influence on students compliance in school. In addition, goal-oriented and rational attitude of parents has an impact on students' scholastic ap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Third, students' goal-instability of life which is one element of students' covert narcissism has negative effect on overall students' school life. Thu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or a better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various parent education training and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can help students set up goals are needed. It also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unseling.

■ keyword : | Parents' Rearing Attitude | Covert Narcissism | School Adjustment |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4년 09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1월 17일

수정일자 : 2014년 11월 04일

교신저자 : 김지현, e-mail : skileo@nate.com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삶은 개인과 환경간의 크고 작은 변화의 연속 과정으로 지속적인 적응이 요구된다. 적응은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과제이지만, 특히 청소년기의 적응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시기보다 더욱 적응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로 전반적인 재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적응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학교생활에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바람직한 사회적, 정서적 행동을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매년 학교 중도 탈락자, 대안학교와 검정고시, 혹은 교육이민을 생각하는 부적응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15세~19세 청소년의 60%가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반증해주고 있다[2].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자퇴와 퇴학을 포함한 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6~7만 명이며[3], 외형적으로는 학교를 그만 두지 않았지만 학교 이외의 대안이 없어 실질적으로 학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몸만 교실에 두고 있는 경우, 혹은 강제로 전학을 한 경우 등 ‘잠재적 중퇴자’ 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4][5].

이런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응은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적응의 중요성을 거듭하여 강조한다[6].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부적응 요인이 발생하지 않거나 제거되어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근래에 학교생활적응은 학업적 적응뿐만 아니라, 교사 및 또래와의 대인관계, 학교규칙의 준수, 학교생활만족 등 다양한 요인의 적응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7].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부모를 포함한 가족관계 변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8-14], 그 외에 또래 및 교사관련 변인[15][16], 자아존중감 변인[17-19], 자아탄력성 변인[20-22], 스트레스 변인[23-25], 사회적 지지 변인[26-28], 자기효능감[29-32]이 주를 이루고, 자기효능감에는 다시 외모 자기효능감[31]과 진로 자기효능감[32]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고, 그밖에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33-36], 낙관성[37], 비합리적 신념[38]등의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이 중에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변인인 부모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39-41]와 자기에와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 내현적 자기에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본 연구들[42][44][45]은 있지만, [42]의 연구를 제외한 두 연구에서는 무용전공 혹은 체육고등학교에 대상을 한정짓고 있어서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문제에 있어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고, 가정의 분위기나 부모의 행동 방식 등은 청소년의 생활습관이나 행동양식 등 대인관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부모양육태도에서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외현화 문제로 나타나기 쉽고, 모든 문제유형은 부모의 수용, 애정, 일상생활의 관심과 이성적 설득을 통한 훈육 등이 부족할 때 나타나고,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자율성 억제는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방관과 무관심은 외현화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45]. 그러므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부모가 가정 내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는 부모에게서 표현되는 양육태도와 자녀의 눈에 비쳐지는 양육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부모양육태도 그 자체보다도 자녀가 자신의 지각양식과 과거의 경험에 따라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에 따라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실제 태도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46]. 따라서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행동이나

성격형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녀의 눈에 비친 부모양육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에게 많은 애정을 쏟지만, 한편으로는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가 행동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욕구는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희생, 헌신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자신을 통제하려는 부모의 태도 때문에 반항적이 되거나, 부모에게 숨겨진 분노를 품게 되기도 하며[47], 그것이 학교생활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39-41][46][47] 등이 있다. [48]는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질 때, 자녀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독립적이며, 다른 사람을 따르고 신뢰하면서 사회적응 능력이 높게 발달하게 됨을 언급하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점점 떠오르는 자애에 대한 사랑으로 대체되고, 자기에 이면에서는 어렸을 때 모습으로 퇴행하면서 정신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청소년이 자기애적 입장으로 퇴행하는 것은 내재적 위험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상적인 과정으로 건강한 자기애적 만족이 내면의 정신력과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고 인생의 수많은 가능성을 추구하게 해준다[49].

부모의 만성적인 방임적 양육태도로 인해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발전시킬 기회를 갖지 못할 경우,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명료한 개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하거나 억압할 위험이 있다. 자기애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도취적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내면적 결핍감을 과잉 보상하려는 심리적 반응형성이다[50]. 이는 자의식 및 수치심을 동반한 열등감을 유발함과 동시에 자기존재에 대한 거대한 환상을 유발시켜 연속성(자기개념 명료성)과 자존감을 발달시킬 수를 근본적으로 방해하게 한다.

자기애 성향의 원인 및 기제에 대하여 [51]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52-56]은 부모양육태도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Kernberg와 Kohut는 부모의 거부적이고 냉정하며, 애정결핍적인 양육 등이 원인인 '부모자녀 과소평가 가설'을 주장했고, Millon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대평가 가설'을 주장하였다. 자기애는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편람인 [57]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준거로 제시하는 자기중심적이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보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애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양상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된다. 두 자기애 유형이 공통된 역동을 지니면서도 서로 다른 현상적 모습을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면 대인관계 행동이다. 선행연구[58-60]를 통해 외현적 자기애자들에 비해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우울이나 불안, 분노, 공격성 등, 역기능적인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내현적 자기애적인 경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단계이고,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청소년기라는 발달 시기를 고려하여 개인내적 변인과 환경적인 변인과의 관계적인 측면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면,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담 장면에서 만나는 학교부적응 문제의 해결방안 및 예방적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환경 변인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개인 변인인 내현적 자기애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어떤 관계가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은 무엇인지 검증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는 학교생활적응 간에 상관이 있는가?
- 2)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3)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4)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에 소재한 4개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학생 580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으며, 2014년 5월 14일부터 2014년 6월 4일까지 3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기재 응답 자료를 제외한 52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N=524)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74	52.0
	여	250	48.0
학년	1	274	52.0
	2	250	48.0
성적	상	90	17.18
	중	307	58.58
	하	127	24.24
부모지위	상	50	9.5
	중	427	81.5
	하	47	9.0
아버지 학력	중졸	7	1.3
	고졸	192	36.6
	대졸	262	50.0
	대학원이상	53	10.1
어머니 학력	기타	10	2.0
	중졸	13	2.5
	고졸	242	46.2
	대졸	228	43.5
	대학원이상	33	6.3
	기타	8	1.5

### 2. 측정도구

#### 2.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성심

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지각검사’를 사용하였다[61]. 이 척도는 Schaefer가 제작한 양육차원 외에도 선행연구를 토대로 2개의 차원을 더 유형화 하여 애정지향, 자율지향, 성취지향, 합리지향 등 4개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차원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등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육태도로 양극화시켰다.

첫째, 애정-적대에서 애정적인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수용적, 헌신적이며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언제라도 고민을 들어주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적대적인 부모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비난과 체벌을 받거나 무시와 거부당했다고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자율-통제에서 자율적인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의견과 행동을 존중받는다고 지각하고, 통제적인 부모는 자녀가 행동에 대해 많은 제약을 받으며, 심리적-언어적인 통제와 자녀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부모가 염려와 불신을 갖는다고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성취-비성취에서 성취적인 부모는 자녀가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부모가 격려해 준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성취적인 부모는 그와 반대로 부담을 주거나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자녀에게 맡겨진 일의 책임완수, 새로운 일이나 경험, 호기심에 대해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합리-비합리에서 합리적인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부모가 중시여겨 일관된 태도로 대하고, 감정에 치우친 반응보다는 분명한 이유에 근거하여 반응한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합리적인 부모는 부모의 기분과 신체적 상태에 따라 체벌과 칭찬의 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기준으로 아이를 양육하며, 형제간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사이에 평정하게 되고, 각 하위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부모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애정-적대	10	1, 4*, 13, 17*, 21, 25, 29, 33*, 34, 37*	.83
자율-통제	10	2*, 6, 10, 14, 18*, 22, 26*, 30*, 38, 40*	.67
성취-비성취	10	3, 7*, 11, 15, 19, 23, 27*, 31*, 35, 39	.71
합리-비합리	10	5*, 8, 9, 12*, 16*, 20*, 24*, 28, 32, 36*	.81
전체	40		.92

\*역채점 문항

2.2 내현적 자기에 척도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를 측정하기 위해 Ahktaar 와 Thomson(1982년)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62]. 이 척도는 내현적 자기에 고유요인(CNS145)을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 등 3개의 하위 척도로 되어있다.

첫째, 목표불안정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과민/취약성은 비판 받았을 때 예민하고 쉽게 굴욕감을 느껴 취약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소심/자신감부족은 소심하고 내향적이며, 매사 자신감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사이에 평정하게 되고, 각 하위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목표불안정	9	5, 15, 20*, 23, 29, 30, 37*, 42, 44	.88
과민/취약성	10	3, 8, 10, 14, 19, 25, 26, 31, 36, 40	.86
소심/자신감부족	8	1, 18, 21, 28, 32, 34*, 39, 41	.75
전체	27		.93

\*역채점 문항

2.3 학교생활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박현선(1998)이 개발한 학교적응 유연성검사를 사용하였다 [63]. 이 척도는 학교생활흥미,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학교규범준수 등 3개의 하위 척도로 분류하였다.

첫째, 학교생활흥미는 학교생활이 즐거운지, 배우는 과목에 대한 흥미, 담임선생님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수업시간의 유익성을 측정한다.

둘째,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는 학교성적의 중요성, 수업시간 학습태도, 학교공부와 숙제에 대한 성실도, 공부에 대한 취미, 학습효율성 등을 측정한다.

셋째, 학교규범준수는 선생님의 지시 이행정도, 학교규범준수, 다툼, 쾨닝, 지각, 무단결석, 학교 시설물 손상, 수업시간이나 자율학습 무단이탈한 경험, 근신, 정학 등의 처벌 경험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사이에 평정하게 되고, 각 하위 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학교생활흥미	7	1*, 2*, 3, 4, 5, 6, 7	.79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6	8, 9, 10, 11, 12*, 13*	.71
학교규범준수	9	14, 15, 16*, 17*, 18*, 19*, 20*, 21*, 22*	.71
전체	22		.83

\*역채점 문항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인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에,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을 밝히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표 5.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N=524)

변인	하위요인	M	SD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애정-적대	37.15	6.61
	자율-통제	33.68	5.44
	성취-비성취	35.24	5.70
	합리-비합리	34.75	6.99
내현적 자기애	목표불안정	25.02	8.44
	과민/취약성	25.78	7.49
	소심/자신감부족	21.71	5.29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흥미	19.66	3.88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16.19	3.41
	학교규범준수	31.28	3.60

#### 2.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와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는 학교생활적응과 .16~.26으로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20~-0.30로 1%의 유의수준에서 학교생활적응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학교생활적응 각 하위요인 간의 상관계수

변인	하위요인	학교생활적응			
		학교흥미	학교태도	학교규범	학교생활적응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애정-적대	.20**	.18**	.16**	.23**
	자율-통제	.12**	.19**	.06**	.16**
	성취-비성취	.22**	.25**	.12**	.25**
	합리-비합리	.20**	.25**	.14**	.26**
내현적 자기애	목표불안정	-.35**	-.21**	-.14**	-.30**
	과민/취약성	-.26**	-.14**	-.12**	-.23**
	소심/자신감부족	-.23**	-.16**	-.06**	-.20**

\*\*p<.01

#### 3.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3.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애정-적대, 자율-통제, 합리-비합리, 성취-비성취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생활흥미,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학교규범준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선택방법을 이용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흥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B	β	t	F	R <sup>2</sup>	ΔR <sup>2</sup>
성취-비성취	.149	.219	5.119***	26.205***	.048	-
애정-적대		.093	1.482			
자율-통제		.007	.142			
합리-비합리		.103	1.885			

\*\*\*p<.001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성취-비성취가 학교생활흥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26.205, p<.001). 성취-비성취가 학교생활흥미에 대해 4.8% (R<sup>2</sup>=.048)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애정-적대와 자율-통제 그리고 합리-비합리는 학교생활흥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B	β	t	F	R <sup>2</sup>	ΔR <sup>2</sup>
합리-비합리	.122	.251	5.914***	34.972***	.063	-
애정-적대		-.014	-.234			
자율-통제		.054	.999			
성취-비성취		.151	2.804			
합리-비합리	.076	.156	2.896**	21.647***	.077	.014
성취-비성취	.091	.151	2.804**			
애정-적대		-.140	-1.973			
자율-통제		.019	.339			
합리-비합리	.106	.218	3.502**			
성취-비성취	.129	.215	3.427**	15.809***	.084	.007
애정-적대		-.073	-1.973**			
자율-통제		.022	.339			

\*\*p<.01, \*\*\*p<.001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합리-비합리, 성취-비성취 및 애정-적대가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5.809, p<.001$ ). 이들 세 변인이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에 대해 8.4%( $R^2=.084$ )의 설명력을 보이며, 그 중 합리-비합리가 6.3%( $R^2=.063$ )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며, 그 다음으로 성취-비성취를 첨가하면 1.4%( $R^2=.014$ )의 설명력이 증가되며, 여기에 애정-적대를 첨가하면 0.7%( $R^2=.007$ )의 설명력이 증가된다. 하지만 자율-통제는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규범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B	$\beta$	t	F	R <sup>2</sup>	$\Delta R^2$
애정-적대	.088	.162	3.756***	14.109***	.026	-
자율-통제		-.036	-.717			
성취-비성취		.004	.069			
합리-비합리		.054	.861			

\*\*\*p<.001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애정-적대가 학교규범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4.109, p<.001$ ). 애정-적대가 학교규범준수에 대해 2.6%( $R^2=.026$ )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율-통제와 성취-비성취 그리고 합리-비합리는 학교규범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B	$\beta$	t	F	R <sup>2</sup>	$\Delta R^2$
합리-비합리	.307	.225	6.017***	36.205***	.065	-
애정-적대		.104	1.688			
자율-통제		.001	.027			
성취-비성취		.154	2.865			
합리-비합리	.191	.158	2.940**	22.458***	.079	.015
성취-비성취	.228	.154	2.865**			
애정-적대		.018	.252			
자율-통제		-.037	-.683			

\*\*p<.01, \*\*\*p<.001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합리-비합리와 성취-비성취가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7.9%( $R^2=.079$ )의 설명력을 보이며, 그 중 합리-비합리가 6.3%( $R^2=.063$ )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졌고, 그 다음으로 성취-비성취를 첨가하면 1.5%( $R^2=.015$ )의 설명력이 증가된다. 하지만 애정-적대와 자율-통제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선택방법을 이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흥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B	$\beta$	t	F	R <sup>2</sup>	$\Delta R^2$
목표불안정	-.159	-.346	-8.434***	71.140***	.120	-
과민/취약성		-.137	-3.082			
소심/자신감부족		-.105	-2.329			
목표불안정	-.134	-.291	-6.534***	40.899***	.136	.016
과민/취약성	-.071	-.137	-3.082***			
소심/자신감부족	-.046	-.882	.378			

\*\*p<.01, \*\*\*p<.001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목표불안정 및 과민/취약성이 학교생활흥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71.140, p<.001$ ). 두 변인이 학교생활흥미에 대해 12%( $R^2=.120$ )의 설명력을 보이며, 그 중 목표불안정이 12%( $R^2=.120$ )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며, 그 다음으로 과민/취약성을 첨가하면 1.6%( $R^2=.016$ )의 설명력이 증가된다. 하지만 소심/자신감 부족은 학교생활흥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내현적 자기애가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B	$\beta$	t	F	R <sup>2</sup>	$\Delta R^2$
목표불안정	-.083	-.206	-4.813***	23.165***	.042	-
과민/취약성		-.069	-1.475			
소심/자신감부족		-.092	-1.959			

\*\*\*p<.001

[표 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목표불안정이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3.165, p<.001$ ). 목표불안정이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에 대해 4.2%( $R^2=.042$ )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과민/취약성과 소심/자신감부족 두 변인은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규범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B	$\beta$	t	F	R <sup>2</sup>	$\Delta R^2$
목표불안정	-.059	-.140	-3.219***	10.361***	.019	-
과민/취약성		-.074	-1.556			
소심/자신감부족		-.001	-.018			

\*\*\*p<.001

[표 1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목표불안정이 학교규범준수에 미치는 영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0.361, p<.001$ ). 목표불안정이 학교규범준수에 대한 태도에 대해 1.9%( $R^2=.019$ )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과민/취약성과 소심/자신감부족 두 변인은 학교규범준수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B	$\beta$	t	F	R <sup>2</sup>	$\Delta R^2$
목표불안정	-.302	-.303	-7.259***	52.692***	.092	-
과민/취약성		-.123	-2.706**			
소심/자신감부족		-.086	-1.878			
목표불안정	-.253	-.253	-5.588***	30.327***	.104	.013
과민/취약성	-.138	-.123	-2.706***			
소심/자신감부족		-.031	-.579			

[표 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목표불안정과 과민/취약성이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10.4%( $R^2=.104$ )의 설명력을 보이며, 그 중 목표불안정이 9.2%( $R^2=.092$ )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졌고, 그 다음으로 과민/취약성을 첨가하면 1.3%( $R^2=.013$ )의 설명력이 증가된다. 하지만 소심/자신감부족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부모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B	$\beta$	t	F	R <sup>2</sup>	$\Delta R^2$
목표불안정	-.302	-.303	-7.259***	52.692***	.092	-
애정-적대		.165	3.872*			
자율-통제		.104	2.463***			
성취-비성취		.190	4.490***			
합리-비합리		.190	4.498**			
과민/취약성		-.123	-2.706**			
소심/자신감부족		-.086	-1.878			
목표불안정	-.254	-.255	-6.018***	37.435***	.126	.034
합리-비합리	.229	.190	4.498***			
애정-적대		.061	1.013			
자율-통제		-.011	-.221			
성취-비성취		.118	2.248*			
과민/취약성		-.073	-1.560			
소심/자신감부족		-.055	-1.205			
목표불안정	-.243	-.243	-5.731***	26.835***	.134	.008
합리-비합리	.144	.119	2.265*			
성취-비성취	.175	.118	2.248*			
애정-적대		-.010	-.150			
자율-통제		-.041	-.779			
과민/취약성		-.075	-1.612			
소심/자신감부족		-.051	-1.113			

\*p<.05, \*\*p<.01, \*\*\*p<.001

[표 1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목표불안정과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합리-비합리와 성취-비성취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6.835, p<.001$ ). 그 중 목표불안정이 학교생활적응에 9.2%( $R^2=.092$ )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며, 그 다음으로 합리-비합리가 3.4%( $R^2=.034$ )의 설명력이 증가된다. 여기에 성취-비성취가 첨가하면 0.8%( $R^2=.008$ )의 설명력이 증가된다. 하지만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과민/취약성과 소심/자신감부족 두 변인과 부모양육태도의 애정-적대와 자율-통제 두 변인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효과적인 학교생활적응을 돕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양육태도 중 자율-통제가 학교규범준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애정-적대,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요인이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생활흥미와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와는 모두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합리-비합리가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 중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현적 자기애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분석 결과 소심/자신감부족이 학교규범준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과 과민/취약성은 학교생활적응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상관을 이룬다는 연구결과

[47][65][66]와 일치한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자율-통제는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교생활흥미와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지만 학교규범준수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통제 요인과 교우관계, 학교수업과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학교규칙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는 [8]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과거와 달리 가정에서 비교적 자율적인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교육을 하는데 반해서 학교생활적응에서는 학교규범, 학교시설물 사용, 수업과 학습 자율시간 적응, 시험시 규정, 교우간의 갈등, 학교행사참여, 학교규범준수 등 자율과 통제가 모두 필요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자녀에게 많은 애정을 쏟지만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가 행동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다. 자녀들 역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애정-통제적인 양육방식에 대해 부모님에게 감사함, 미안함, 측은함 등을 느끼면서도 과도한 기대, 희생, 헌신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자신을 통제하려는 부모의 태도 때문에 반항적이 되거나 부모에게 숨겨진 분노를 품게 되기도 하는데[64], 이것이 학교생활적응에서 반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합리-비합리가 가장 학교생활적응과 상관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애정과 통제를 반복하면서 자녀에게 죄책감과 부담감, 반항심을 심어주기보다는 애정적이면서도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합리적인 설명과 함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학교생활흥미와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성격이 학교생활과 학업 및 성적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자신감향상 프로그램 및 사회성 기술 훈련 등을 통해서 학교생활적응 향상의 필요성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둘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요소 간에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합리-비합리와 성취-비성취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전체 7.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합리-비합리(7.6%)와 성취-비성취(6.5%)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애정-적대와 자율-통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 성취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는 [6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청소년 시기이므로 애정적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율에 맡기거나 일방적으로 통제를 하기 보다는 학업과 목표설정, 또는 새로운 것에 도전을 시도할 때 높은 성취와 포부수준을 설정하도록 격려하며, 적극적인 활동과 호기심과 끈기를 가지고 하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교육에 대한 보다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요소 간에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중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중 목표불안정 및 과민/취약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10.4%의 설명력을 보이며, 그 중 목표불안정이 9.2%, 과민/취약성이 10.4%의 설명력을 보이고, 소심/자신감부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목표불안정이 낮을수록 적응이 높아지고 목표불안정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도 높아진다는 [6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명료성이 약한 것이 내현적 자기애의 특징인데 자기명료

성이 약하다는 것은 인생 목표와 삶의 목표, 일의 진정한 즐거움과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무슨 일을 할지가 막연하고 하는 일에 대한 만족감을 모르게 될 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진로 동기와 목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과 진로 동기뿐만 아니라 목표불안정과 자기명료성이 연관이 있음을 알고 자기명료성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의식을 많이 하는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과민/취약성으로 인해 비판을 받을 때 쉽게 굴욕감을 느껴서 열등감을 가지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결점을 들춰봐 전전공공하고, 창피를 당하면 계속 생각하고 괴로워하면서 오래도록 가지고 가고, 대인관계에서도 함께 있어도 외롭고 불편하고 슬픔과 우울이 며칠간 계속되면서 쉽게 기분전환이 안 되는 점이 일치한다.

넷째, 부모양육태도와 내현적 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요소 간에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목표불안정과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합리-비합리와 성취-비성취가 학교생활적응에 13.4%의 설명력을 보이며, 그 중 목표불안정이 9.2%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부모양육태도의 합리-비합리가로 3.4%의 설명력이 증가되고, 다음은 성취-비성취가 0.8%의 설명력이 증가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이 대체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44]의 연구결과와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목표불안정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표불안정이 부모의 과보호와 정적인 상관있고, 부모의 과보호로 인해 자신감부족과 타인의 눈치를 보고,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데 어려움을 느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5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합리적이고 성취적일 때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 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이고 애정적으로 지각할 때,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40][69][70]와는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애정적인 부모양육태도도 필요하지만 자녀가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목표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여 성취감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등학생의 자녀가 학교생활적응을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데 필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흥미,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학교규범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합리적-비합리적인 부모양육태도와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가 상관이 가장 높고, 학교생활흥미는 성취-비성취적인 부모양육태도와 상관이 가장 높고, 학교규범준수는 애정-적대 부모양육태도와 상관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부모의 합리적이고 성취적이며 애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목표를 안정적으로 세우는 것을 도와서 학교생활적응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자녀 프로그램과 학습 동기와 학습과 진로 목표를 세우는 프로그램 등의 연구 등이 기대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학년을 표집하지 않고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녀 고등학생 모두 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의 수가 고르지 않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년별에 따른 차이와 남녀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가족변인과 개인내적인 변인과 환경 변인을 고려하였으나, 사회적 지지 변인을 고려하지 않아 차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함께 밝혀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구자경,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 자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309-330, 2003.

[2] 강양희, 박성희, “청소년의 외모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6호, pp.211-218, 2014.

[3] 교육과학기술부, *학업중단속려제 운영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2.

[4] 조윤숙, 이경남,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8권, 제8호, pp.27-37, 2010.

[5] 김선아, “학업중단 청소년 중 비행과 일반청소년의 개인 사회적 요인과 중단 후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216-226, 2012.

[6] 조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5권, 제1호, pp.35-50, 2012.

[7] 김경보,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변인 탐구: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8] 김원두,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자기통제력과 학교적응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9] 김효선,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적응력 방어기제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제13권, 제6호, pp.2641-2656, 2012.

[10] 권수정, 이현주, “가족기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7호, pp.188-195, 2014.

[11] 모혜경, *가족기능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

- 에 미치는 영향 전문계 고등학생중심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2] 이화경, *고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3] 임나래,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4] 조미연,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아동의 대인관계 성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5] 이수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6] 공인주, *고등학생의 부모-교사-또래 애착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 기숙사 생활 여부를 조절변인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7] 박영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8] 김윤경,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9] 김순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0] 김미정,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1] 고은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2] 권미정,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자아탄력성, 부모지지,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3] 김갑진, *REBT를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감소 및 학교적응 향상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3] 김혜리, 박재국, 최은주,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4권, 제1호, pp.305-322, 2013.
- [25] 노미숙,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26] 김숙영, *초등학생의 낙관성 및 비관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7] 박미숙,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운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8] 주현경,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1998.
- [29] 김복진, *고등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30] 구혜경, *과학영재 고등학생의 완벽주의성향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31] 손미혜, *고등학생의 외모에 대한 태도와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32] 최준집, *고등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3] 조은숙, *경기도 지역의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학교적응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34] 이현순,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35] 용상화,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36] 최정혁,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37] 강민형, “감사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낙관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 [38] 이성미, *고등학생의 비합리적 신념이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39] 김혜영,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제2000권, 제3호, pp.205-223, 2000.
- [40] 김교연,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방어기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1] 이하영,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반발심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42] 김동민, *체육고등학교 운동선수의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43] 신원국, *고등학생의 애착과 자기애적 성격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44] 조소희, *무용전공 고등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편집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5] 한상은, *고등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46] 김정희, 안귀여루,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8권, 제4호, pp.823-836, 2012.
- [47] 안혜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청소년의 의사결정유형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48] E. S. Schaefer,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59, pp.226-235, 1959.
- [49] Freud,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In J. Strachey (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14, pp.67-104, London: Hogarth, 1915.
- [50] Kernberg,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1975.
- [51]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1.
- [52] Milon, “The DSM-III: An insider’s perspective.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38, pp.804-814, 1981.
- [53] S. Akhtar and J. A. Thompson,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39, pp.12-20, 1982.
- [54] 윤혜신,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 성격 성향 정도와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55] 장진희,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및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56] 강선모, “대학생의 과보호 및 부모화 경험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4호, pp.53-78, 2012.
- [57]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C,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revision, 1994.
- [58] 백승혜,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59] 박세란,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60] 이준득,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61] 오성심, 이종승,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서적 특성의 관계”, 행동과학연구노트, 제11권, 제1호,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1982.
- [62] 강성희, 정남운,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14권, 제4호, pp.969-990, 2002.
- [63] 박현선,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64] 최상진,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사회과학연구, 제7집,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213-237, 1994.
- [65] 구기회,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66] 전화연, 청소년의 가정환경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애착,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갈등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67] 장성화, 구승신, 이주연, “대학생의 부모양육태도, 정신건강이 다차원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797-807, 2013.
- [68] 권석만, 한수정, 자기에적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2000.
- [69] 문선모, 중학생의 배경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70] 황규숙, 부모양육태도와 중요한 타인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저 자 소 개

김 종 윤(Jong-Un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상담심리) 박사
- 2005년 ~ 2006년 : 인디애나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방문교수
- 2009년 ~ 2012년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 2008년 3월 ~ 현재 :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상담, 학교상담, 아동청소년 상담심리

김 지 현(Ji-Hyun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교육상담) 석사
- 2014년 8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교육상담) 박사
- 2009년 3월 ~ 2012년 2월 : 동아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상담원
- 2012년 4월 ~ 현재 : 부산고등학교 전문상담사  
<관심분야> : 가족, 아동, 청소년, 교육